

HI Economy

북한 리스크, 한숨 돌리나?

■ UN 대북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 리스크가 다소 진정될 듯

북한의 연이은 ICBM급 미사일 발사로 재차 고조되었던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UN의 대북 제재결의(2371호) 채택으로 다소 진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발언과 함께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으로 미국측은 지난주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를 발표할 것임을 시사했다. 소위 8월 위기설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확산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법 301조'를 포함한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 발표를 연기하였고 마침내 주말 미-중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 UN의 새로운 대북 제재이 채택되었다. 미-중간 갈등이 봉합되었다는 측면에서 최악의 사태는 피하는 모습이다.

물론 이번 UN 대북 제재결의로만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의 해소를 기대하기 어렵다. 중국측이 여전히 사드배치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북한 역시 추가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위기감을 재차 고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UN 제재결의안으로 당분간 미국측의 군사행동관련 리스크는 크게 약화될 해소될 수 있다. 따라서 4월에 이어 7월 중순 이후 국내 CDS 상승과 함께 본격화된 외국인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흐름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 7월 미 고용과 7월 중 생산자물가(9일 발표)는 증시에 긍정적 영향

국내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 증시에 부담을 주었던 미국 경기 모멘텀 둔화 리스크가 7월 고용지표로 완화될 여지가 높아졌다. 미국 7월 고용지표 내용은 일자리측면이나 통화정책측면에서 시장의 기대를 100%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우선 일자리수는 시장 기대치(18만건)을 크게 상회한 20.9만건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4.3%로 16년간 최저 수준으로 내렸다. 동시에 노동시장 참가율도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반면에 임금상승률은 여전히 더딘 상승률을 기록했다. 고용시장이 소위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 미 연준의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 기초를 뒷받침해 주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Chief Economist

박상현

(2122-9196)

shpark@hi-ib.com

Economist

진용재

(2122-9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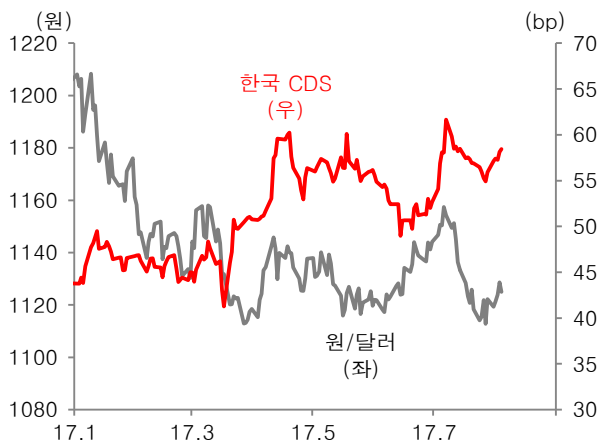
yj@hi-ib.com

미국 고용지표 호조와 더불어 중국 경기 흐름도 글로벌 증시에는 우호적이다. 특히 오는 9일 발표될 중국 생산자물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7월 중국 생산자물가 상승률의 시장 기대치는 전년동월 5.6%로 6월에 비해 0.1%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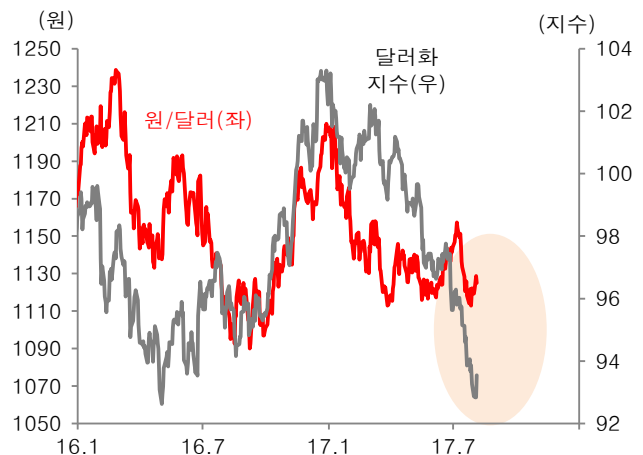
7월 중국 생산자물가를 주목하는 이유는 동 물가지수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률과는 차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중국 생산자물가와 유가 등 원자재 가격간 상관관계는 거의 절대적이지만 지난 6월부터 이들 변수간에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국 생산물가 상승률이 원자재 가격 보다는 중국 기업 활동에 더욱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투자과잉으로 시달리던 중국 기업들의 과잉부담이 완화되면서 가격결정력이 높아졌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중국내 내수와 수출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다.

요약하면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경기 모멘텀 둔화 등으로 확대되던 외국인 주식 순매도가 다소 진정될 여지가 높아진 동시에 오히려 미국 경기 안도감과 중국 지표 호조로 원자재 등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재차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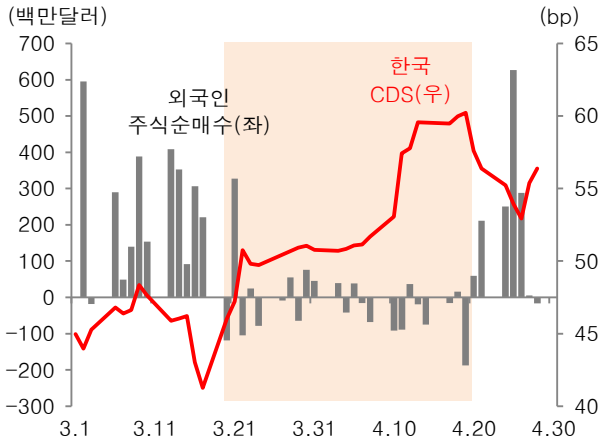
<그림 1>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내 CDS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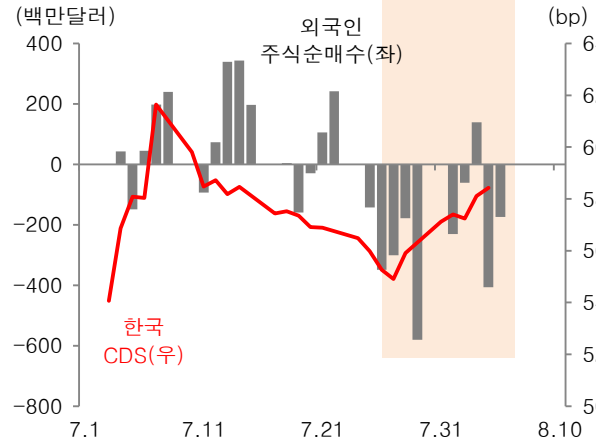
<그림 2> 북한 리스크로 인해 원화 흐름이 급격한 달러 약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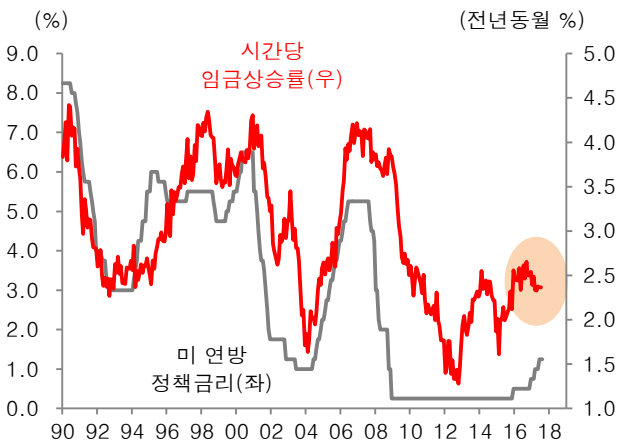
<그림 3> 지난 4월 위기설 당시 한국 CDS와 외국인 주식 매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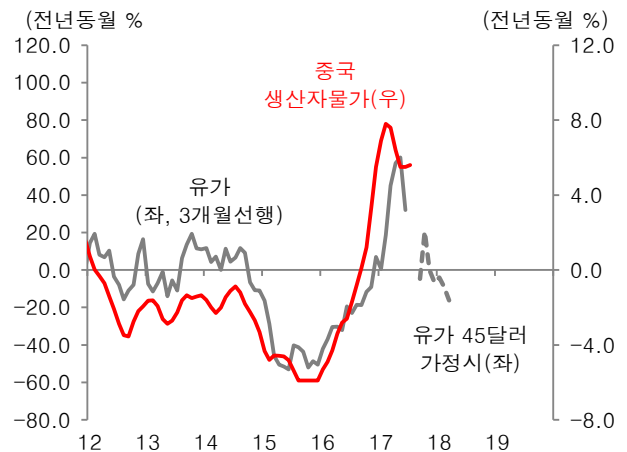
<그림 4> 지난 7월 중순이후 한국 CDS 상승과 더불어 외국인 주식순매도 규모가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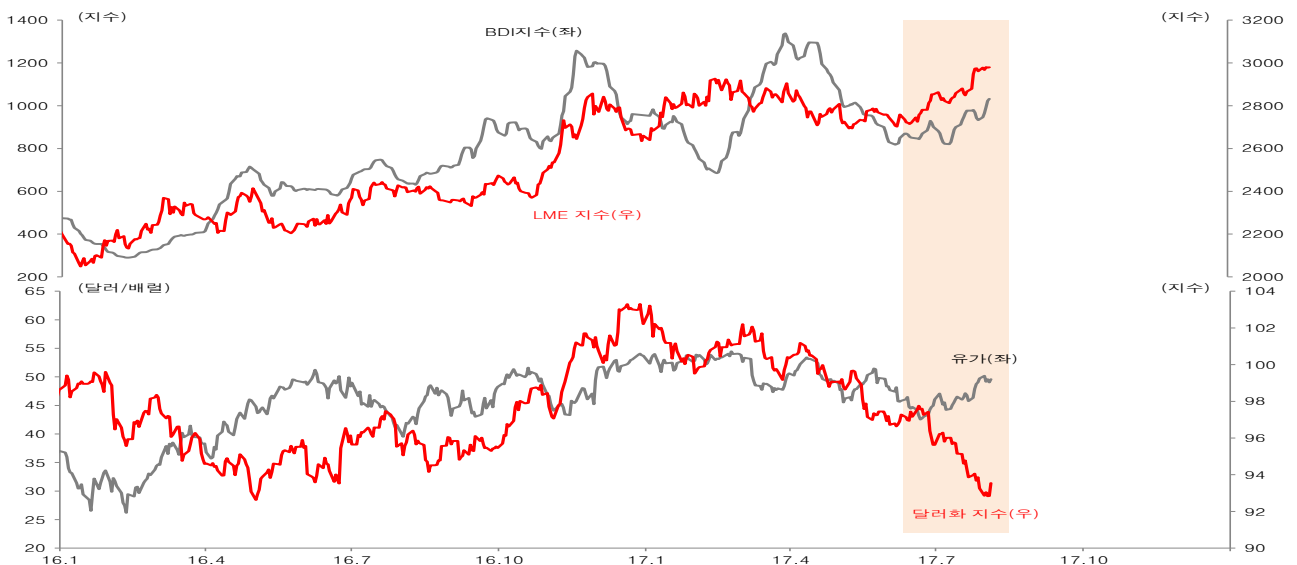
<그림 5> 7월 고용지표가 호조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은 제자리 수준을 유지함



<그림 6> 유가 등 원자재 상승률과 차별화되고 있는 중국 생산자물가 상승률



<그림 7> 달러 약세와 더불어 글로벌 경기회복세로 각종 원자재는 물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함



자료: Bloomberg, CEIC, 하이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박상현, 진용재)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